



광복절과 국기 게양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8월 15일은 광복절 제77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74주년 일이다. 이날을 앞두고 우리는 광복절에 대한 교육과 국기게양 교육을 하고 광복절 당일에는 전 국민이 집집이 국기를 게양하고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광복절이다.

국기게양은 국민의 의무이자 선택의 자유가 아니다. 따라서 국경일에 모든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민주화가 성숙할수록 국민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자유를 오해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경일에 국기게양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는 반드시 국기게양을 해야 하며 그에 따라 국기가 없는 가정에 국기를 갖추도록 행정당국은 안내하고 교육하는 곳에서는 국기게양 지도를 해야 한다.

광복절날 우리는 자라나는 자녀와 학생들에게 일제의 만행을 알려 주고 국가관을 심어 주는 국가관 교육의 날로 뜻깊게 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각 가정에서 갖추고 국기게양을 하면서 자랑스러운 태극기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국기 보유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국기가 없는 가정에 국기를 보급하고 전국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국기게양을 홍보해야 한다. 국기게양 교육은 국경일을 앞두고 특별한 관심을 두고, 교육하는 가정과 학교 지자체 교육기관에서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

민주주의 선진국 미국은 다민족국가이면서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자율적으로 국기게양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올해 국경일인 3·1절 제헌절에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 가정이 너무 많아 부끄러운 일이었다.

우리나라가 품격 높은 민주주의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의 역사교육을 해야 하며 국기에 대한 의식교육이 앞서야 한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를 표시하는 것이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다.

국제경기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우리의 응원단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우리 국민이 뜻깊은 국경일에 국기게양을 않는 것은 국민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국기게양 홍보 교육이 잘 안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건국 74주년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통일을 못 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이산의 아픔을 안고 있으며, 성숙한 민주정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을 하루빨리 없애고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 성숙한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이면서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게 된 날이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이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10월 1일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5일을 광복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과거사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자녀와 학생들을 안내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과거사를 탐색해 보게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어떠한 만행을 했는가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은 독립기념관이다. 광복절을 전후해서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국가관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2천 년을 국가 없이 떠돌이 하면서도 국가와 민족의식을 지켜온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정에서 국가관 교육이었다. 독립기념관에 들어서면 첫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다.

독립투사들에는 태극기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으며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되찾으려고 피를 흘리며 일제와 투쟁했다.

기념관에 전시된 독립투사들이 간직했던 피 묻은 태극기는 보는 사람들을 숙연케 하고 있다. 국기는 나라상징이며 국기 없는 나라는 없고 나라 없는 국기도 없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세운 대한민국을 위해 내가 할 일을 다짐하는 것이며, 2007년에 내용 문구가 수정되었다.

우리를 침략한 일본은 과거사 반성은 하지 않고 한국 침략의 정당성을 교과서에 왜곡하여 지도하고 있고,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변할 줄 모르는 일본의 침략야욕과 일제의 악랄한 만행을 규탄해야 하며, 현실점에서 남북통일을 다짐하면서 광복절 국기게양을 통해 국가관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칼럼

늘어나는 수난사고, 조심 또 조심

김나영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어느덧 올해도 8월의 중순을 향해가고 있다. 입추가 지나며 중부권에는 2차 장마가 시작되고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습하고 더운 날씨를 피하고자 물놀이장, 바닷가,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물놀이는 무더운 날씨를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 하지만 즐거운 와중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뉴스도 종종 나와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한다.

지난 6일 오후 4시경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변에서 가족들과 함께 피서서 온 10대 학생이 물놀이할 하다 숨진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달 7일에도 순천 서면 청소리 계곡에서 수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남소방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19년 1175건, 2020년 1603건, 지난해 1648건 등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3년간 총 4426건의 수난사고가 발생했다.

전남소방에서는 수난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시·군별로 수상구조대 운영에 나서고 있으나 해마다 물놀이할 하던 피서객들이 숨지는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나는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며 야외에서 물놀이 시 구명조끼 등과 같은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혼자서는 수영하지 않는다. 바닷가, 계곡 등은 물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고 급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영에 자신이 있는 사람도 자만하지 않고 개인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한다.

둘째, 음주 후 물놀이는 금한다.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은 우리의 뇌를 마비시켜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정의 절제를 힘들게 한다. 이는 물놀이 중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 잦은 위험요소를 발생시킬 것이며 나아가 실제 위급한 상황의 대처능력 또한 떨어지게 만들어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이 될 것이다.

셋째,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 할 때는 안전장비를 활용한다. 최대한 먼저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소리 쳐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며 주변의 도구(튜브, 장대, 밧줄 등)를 활용해 안전하게 구조를 해야 할 것이다.

즐거움 여름 피서가 되느냐, 평생 잊지 못할 악몽으로 남느냐는 우리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문천로 213 스카이맨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흥호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본질이 망각된 집회현장

집회·결사의 자유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

허현욱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하는 집회도 존재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새벽이나 늦은 밤에 방송을 송출하며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는 일반 시민들의 최소한의 휴식을 방해하고,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공감, 지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현대 사회의 시민이라면 모두 자신의 권리를 갖고 그만큼 합당한 의무가 따른다. 인간 최고의 의무는 타인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빅토르 위고의 명언처럼,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확립되길 바란다.

오늘날 거리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방송을 송출하며 집회·시위를 개선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대부분 집회는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평화적인 선진 집회 개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간혹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주거권·학습권 침해, 업무방해 등 일반 시민들에게 여러 불편을 끼쳐 환영받지 못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